

# 재고도서 할인판매는 우리 모두를 결단낸다

덤핑행위 등은 출판시장 질서 어지럽혀 ... 근본적인 과잉생산 방지책 연구가 급선무

김성재

일지사 대표

## 재고도서의 개념

정부의 특정 분야 도서에 대한 정가제(재판매가격유지제도) 폐지 움직임과 일부 서점 등의 가격과파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더니 이제는 출판계의 포럼에서 재고도서를 덤핑 값으로라도 유통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는 재고도서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한다니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 없다. 이 모두가 출판물의 상품 특성을 잘 모르는 데다 그 문화적 역할을 통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잘못 쓰이고 있는 재고도서의 개념부터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재고도서란 장래의 판매를 위해 아직 출고되지 않은 책을 주로 이르는 말이나, 팔다 남아서 창고 같은 데 쌓여 있는 책도 포함해서 말한다. 곧, 판매를 위해 출고 대기중인 책과 출고 가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책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출고 대기중인 책은 살아 있는 책이고, 출고 가망이 거의 없는 책은 잠자는 책(休眠圖書)이며, 출고 가망이 전혀 없는 책은 죽은 책이다. 그중 잠자는 책 곧 휴면도서를 구간도서(舊刊圖書)라고 일컫는 이도 있으나 적절한 말이 아니다. 신간이 아닌 예전에 나온 책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는 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 '재고도서'란 말의 왜곡된 쓰임

그런데, 언제부터가 휴면도서(죽은 책도 간혹 포함해서)만을 가지고 재고도서라 일컫는 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 휴면도서를 재고도서란 이름으로 주로 유통시키는 업체까지 있다. 이 업체는 소매가는 정가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출판사 출고가는 책의 제작 원가에 접근하도록 협의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업체는 이른바 덤핑으로 나오는 책을 다루는 곳을 알 수 있으니 살아 있는 책도 싸게 사서 싸게 팔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덤핑으로 나오는 책에는 잠자는 책과 죽은 책(이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가 망했거나 돈이 급해서 살아 있는 책을 싸게 처분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창고 사정으로서 판매가 부진한 책

을 싸게 처분하는 수도 있을 것이며, 휴면도서 내지 사장도서를 절단 등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다소 나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작은 욕심 때문에 덤핑으로 처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의 불황의 계속과 심화로 반품의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살아 있는 책의 라이프 사이클도 여러 요인으로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창고는 비좁아지고 자금이 잘 돌지 않는다. 그리하여, 출판사들은 덤핑으로라도 재고를 처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수가 있는 모양이나, 차마 덤핑으로 책을 내다팔 수는 없어서 속앓이만 하는 출판사가 적잖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최근 출판연구소가 주최한 포럼(97년 7월25일 개최)의 주제가 '출판경영 합리화를 위한 재고도서 처리방안'이었고, 발표한 글에서 그 처리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덤핑으로라도 안 팔리는 책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발표문에서는 "일부 도매상에 재고도서 납품부서를 따로 두어 전국 시장에 유통시켜야 한다"고, "별도의 유통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별도 조직을 만들려면 재고도서 유통거리를 조성하는 방안과 전국에 체인망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국에 체인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서점을 중심으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체인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심지어는 출판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도서대여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체인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켜 정가과파가 예상일이 돼버릴 것이다. 더구나, 덤핑식 재고도서 할인판매가 활성화된다면 정가판매점은 자취를 감추고 난장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휴면도서를 덤핑으로 처분하는 것은 출판경영의 합리화와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출판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판사는 물론 서적상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독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도서의 정가제마저 아예 무너뜨리게 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휴면도서를 덤핑 처리하는 것은 출판경영의 합리화와는 동떨어지는 일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휴면도서의 처분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어느 수준의 적정재고를 둘 것인가이다. 과다재고의 근본원인인 과잉생산, 과잉송품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대형서점의 구간도서 할인매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휴면도서의 처분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어느 수준의 적정재고(緩衝在庫, safety stock)를 둘 것인가이다. 과다재고의 근본 원인인 과잉생산과 과잉송품(過剩送冊)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래야만 반품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폐기처분해야 할 책도 줄어들 것이다.

## 부당한 재고도서 할인판매 행사

'97년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독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재고도서 할인판매 행사를 할 계획이니 참여해 달라는 어느 도서관으로부터의 공문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자고 도서관에서마저 도서의 가격과파 행사를 하려 한단 말인가.

그런 행사야말로 도서정가제 붕괴를 촉진시키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가보다. 또한 죽었거나 죽어가는 책을 처분해서 조금

이라도 돈을 건지려는 작은 욕심 때문에 출판계와 서적계 전체가 결단나고 독자에게도 해가 되는 걸 개의치 않는 출판사가 아니고서는 도서의 가격과파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먼저 도서관의 장서를 충실하게 하고 덤핑적 따위의 부실한 도서부터 슈어내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를 결단내는 것이다. 무한경쟁으로 서점이 잘 팔리는 책만 취급할 것이므로 학술서나 전문서와 같이 가치 있는 책의 출간이 불가능해져 양식 있는 출판사의 수가 줄어들고,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인 책의 종류도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해 독자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없게 돼 지식과 정보의 흡수에 지장을 가져오고 서점도 이윤이 적어지고 할인문제로 독자와의 실랑이가 잦아지며, 높은 마진의 요구로 책값도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